

2017년 5월 14일, 구좌읍 세화리 세화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  
 김옥자(여, 1932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- 줄거리: 벤인테는 거짓말쟁이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. 하루는 부잣집 대감이 일꾼 오십 명을 데리고 자신의 밭에 잡초를 뽑게 하고 있었는데, 그곳에 벤인테가 지나가게 되자 농담으로 거짓말이나 한 자리 해두고 가라는 말을 던지게 된다. 벤인테는 대감의 말에 지금 남원에 왜의 배가 쳐들어와 거짓말 할 시간이 없다며 급하게 가버린다. 대감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꾼들과 남원의 포구로 달려갔으나 모두 거짓말이었다.

**[조사자]** 거짓말 잘하는 사람 얘기는 안 들어보시고?

**[제보자]** 거짓말 잘하는 사람? 아, 옛날에 어느 사또가 벨감인가 뭐 하도 거짓말을 경 잘 허난. 이 대감이 막 부제로 잘 사나네, 인부덜을 한 오십 명을 얻영, 밧디 검질을 메러 갖어이. 검질을 메레 간에, 검질 메노렌 허난.

“어, 저, 서귀진 벤인테 거짓말이나 한 자리 해된 가게.”

경 골으난.

“어따감에, 거짓말 헐 시간이 어디 잇우과?”

“무사?” 허난.

“거짓말이랑말앙 저 뽕밧개에 여배 들언에 저 보장 앓이레 감습네다.”

그추룩헐 돌아부난. 이 대감은 ‘하이고, 뽕밧개에 여배 들었에 큰일났어.’ 대감이 밧디 오란

“이 일 헐 때가 아니.”

난, 그냥 그 쉬흔 멍 인부덜 검질 메당 내비뒀에 그냥, 뽕밧개를 뛰어강 보난. 거짓말이라, 거짓말로 골으난.

이젠 그 대감은 오라네

“아, 저 사람 무신 거짓말을 그추룩헤그네. 나 오십 명 인부 다 해산시켜 불고 뽕밧개??장 가왔인다.”

- 핵심어 : 거짓말, 벤인테, 서귀진, 대감, 인부, 검질, 뽕밧개, 여배